

# 성경적 세계관을 바탕으로 한 교재 개발

-송경부 목사 / 2003. 4. 15 -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잠1:7)이라는 말씀은 단지 기독교 교육 철학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철학에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모든 과목에서 교과서로 사용될 수는 없지만, 모든 교과 과정과 가르침의 기준을 위한 기본 안내서의 역할을 성경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모든 교과과정에서 성경적으로 추론하고 논리를 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모든 교과 과정의 내용이 산업주의 영향 아래 국가적 이익을 위한 인재 양성 위주의 교육 체제로 되어 있어 개별적인 창의력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교육체제에 단순한 기독교적 요소를 보충한다 해도 그 근본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육체제의 근본과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기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육일만에 창조하셨고, 이때 모든 만물은 그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시는 것이 아무 것도 없으며, 어떤 식으로든 모든 학문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다루고 있기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종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성경적 세계관이라는 틀 속에 모든 학습 교재를 개발하며 선택하고 분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1. 언어와 문학의 성경적 관점

언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신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언어로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연합을 갈망하여 바벨탑을 세웠을 때,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의 언어를 여러 언어로 바꾸심으로 인간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즉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이 오용되며 타락되었습니다. 결국 언어의 올바른 사용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언어사용을 통해 모든 문학 작품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들은 성경 진리 측면에서 읽고 평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채, 다른 사람들이 쓴 문학작품을 읽게 되면 진리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비평, 판단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언어와 문학을 배우는 목적은 결국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2. 수학과 과학의 성경적 관점

창조주 하나님의 숨씨로 창조된 우주 만물을 볼 때 한 마디로 수학적인 질서 그 자체입니다. 특별히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관점은 수학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 그리고 개체의 차이점에 대한 기본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이러한 질서와 차이는 창조주의 속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놀라울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자연, 물리학의 이론이 펼쳐질 때마다 하나님의 수학적 인 독창력에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모든 수학의

공식들과 방정식 그리고 원리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하신 것들을 연구하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은 이러한 공식들을 통해 인간 말살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결핍된 성경적 세계관에 의해 교육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과학 같은 과목은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하여 연구하는 학문으로서 이 땅을 다스릴 책임이 있는 인간이 올바른 방법으로 이 창조물들을 돌보는 법을 배우는데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연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모든 창조물에 대해 그것을 창조하신 자와 무관하게 언급하면 결국 진화론적 세계관 속에 흘러 떠내려가게 가게 되고, 결국 과학은 이러한 사이비 이론의 이용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들 대부분이 이러한 이론에 영향을 받아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들은 성경적 세계관이 담겨있는 교재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안교육의 회복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3. 사회와 역사 및 그 밖의 과목들에 대한 성경적 관점

구약과 신약의 사회 구조를 보면 특별히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의 사회 구조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이교도의 사회와 비교하며 오늘날 부패한 사회를 효과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언급된 법과 규범들은 다른 나라와 민족들의 다양한 사회 구조들을 분석하는 도구로 쓰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질서와 변질된 인간들에 의한 왜곡된 질서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진정한 사회를 발견 할 수 있도록 교육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왜곡된 사회 질서를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 된 사회를 제시하며 교육 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이 분명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단순히 이름과 날짜, 장소, 사건 등을 연대기적으로 나열한 것이 아닌 그 이상의 것으로서 하늘과 땅에 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목적을 지녀야 합니다.(엡1:10 참고)

즉, 역사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중심 두어야 합니다.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들도 모두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듯이 그 이후에 일어난 모든 사건들도 이 세상 끝 날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최후 승리를 향한 역사적 관점을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사유재산을 소유할 권리며 소득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인간의 경제를 다스리는 법들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하기 위하여 성경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향하여 자비를 보여주는 경제 체제를 위한 지침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예술과 기술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입니다. 이러한 은사들을 통해 그분이 창조하신 작품들의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모방하기 위해 사용되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예술과 기술을 개발시킬 수 있는 교육을 받아 각자의 창의적 은사들을 하나님의 진리와 법과의 조화 속에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귄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고후6:14) 하지만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의한 모든 학습과목들은 인간의 즐거움과 이기적인 허영을 부추기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사고, 감정, 행위를 부추겨 오늘날의 문화와 기술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대한 책임감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육의 유일한 기준이므로 기독교교육은 모든 비기독교인들의 사고와는 갈등 관계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육은 불가피하게 종교성을 갖고 있기에 중립성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적 세계관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이냐의 문제만 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마12:30)

결국 비기독교 교육은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이 세상의 영에 대적하여 싸우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안교육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